

농촌정주공간의 이용특성과 개선필요도 평가

Evaluation on the Behavior Patterns and the Improvement Necessity of the Korean Rural Settlement

박창석*, 임승빈**

* :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Park, Chang-Sug*, Im, Seung-Bin**

*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Major, Seoul National University

** :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0년대 이후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영향이 농촌지역에 미치면서 농촌마을은 외형적으로 형태와 기능이 급변하고,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구성이 이질적으로 변하였고 생활방식과 정주공간 이용패턴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생활방식의 변화는 그들의 생활방식과 요구 등에 적합한 각기 다른 공간들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공간이용특성의 차이로 나타난다.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은 주택에서부터 군청소재지와 인접 시지역을 포괄한 공간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주택과 마을공간, 면소재지, 군청소재지 등의 정주공간은 경쟁과 보완관계를 통해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따라서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마을의 역할은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농촌정주공간의 이용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함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주민의 정주행태를 토대로 마을유형과 주민특성에 따른 정주공간 이용특성을 구명(究明)하고, 주민의식과 일상생활을 반영한 개선필요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농촌마을 유형화에 기초한 표본농촌마을 선정과 표본농촌마을주민의 정주행태와 주민의식 등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농촌마을 유형화에 기초한 표본농촌마을의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광주군과 여주군, 강원도 홍천군의 5개 사례연구지역(초월면, 북내면, 가남면, 북방면, 내촌면)의 108개 마을(행정리)에 대해 사회적, 물리적(토지이용), 기능적 측면으로 구분된 13개 조사항목을 1998년 5월 23일에서 6월 12일까지 행정기관 방문조사, 이장 인터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둘째, Spss Windows (Rel.8.0)을 이용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5개 마을유형으로 구분하고, 요인점수(factor score), 지역별 분포, 군청소재지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마을 유형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2개 마을을 표본농촌마을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표본농촌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면접방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1998년 7월 11일에서 7월 23일까지 수행하였다. 농촌주민의 정주행태와 의식구조 등에 관련된 설문지(I)을 표본농촌마을별로 40부씩 할당하고, 마을공간의 유사성(similarity)에 대한 설문항목을 별도의 설문지(II)로 작성하여 이장을 포함한 주민 4명을 대상으로 각 마을별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표본농촌마을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유효 회수율은 83.8%[설문지(I):335부]와 87.5%[설문지(II):35부]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정주행태를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주행태는 행태특성, 이용공간의 성격, 주민참여방식 등에 의해 마을공동행태, 개인중심행태, 서비스이용행태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관찰조사 및 설문조사 등에 기초하여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을 대표한다고 판단되는 34개 정주행태를 선정하여 주이용장소와 발생빈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첫째, 농촌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13개 조사항목에 대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마을유형을 구분하였다. 즉, 농촌마을의 특성을 나타내는 13개 조사항목은 인구 및 건축밀도특성, 토지이용특성, 공동공간 특성, 상업공간 특성의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농촌마을 유형은 비농가일반마을(유형 I), 비농가상업마을(유형 II), 노령화혼재마을(유형 III), 일반혼재마을(유형 IV), 노령화농가마을(유형 V)로 구분하였다.

둘째, 농촌주민의 정주행태 빈도[(회/日·人)×100]를 분석한 결과, 휴식·교제가 전체 행태빈도의 32.38%[(회/日·人)×100]로 가장 높았고, 개인농작업(23.4%), 구매·판매(19.4%), 공공시설이용(12%)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임·행사 : 오락·놀이 : 공공시설이용 : 구매·판매 : 개인농작업 : 휴식·교제 : 공동작업>의 정주행태 빈도의 비율은 <1 : 3 : 4 : 7 : 11 : 0.4>로 나타났다.

셋째, 농촌마을 유형과 주민특성(직업, 연령, 거주기간, 농업형태 등)에 따른 정주행태 빈도의 차이를 독립표본의 t-검증, Anova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농촌주민의 성별(性別)에 따른 정주행태 빈도의 차이는 없었으나, 마을유형과 연령층, 농업형태 등은 정주행태에 따라 그 빈도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휴식·교제, 공동작업은 연령, 거주기간, 농업형태, 소득수준에 따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넷째, 농촌정주공간을 '주택-마을공간-인접마을-면소재지-군청소재지/시'로 구분하여 주민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주택(31.8%)과 마을공간(37.1%)에서의 공간이용율은 68.9%로 나타났고, 군청소재지/시의 공간이용율(15.8%)은 면소재지(12.2%) 보다 높았다. 따라서 농촌주민은 주택과 마을을 상당부분 이용하면서 군청소재지/시지역을 빈번히 이용하여 '주택/마을→군청/시'의 직결형 이용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농촌주민은 연령계층과 농업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정주공간 이용특성을 보였으며, 정주공간으로서 마을의 이용률은 청년층(29.4%)에서 중·장년층(36.5%), 노년층(49.9%)으로 갈수록 증가하였고, 전업농가(40.6%)에서 겸업농가(35.5%), 비농가(29.3%)의 순서로 낮아졌다.

다섯째, 농촌마을의 자택, 친구/친지집, 마을회관, 노인정 등의 42개 공간에 대한 이용특성을 분석하였다. 농촌주민은 자택을 중심으로 마을회관, 상점/슈퍼, 노인정, 자택주변도로, 텃밭 등을 빈번하게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간이용량과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인식은 0.83(p<0.01)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농촌주민들은 마을안길을 교제·휴식, 오락·놀이, 개인농작업을 위해 활발하게 이용하였고, 모임·행사를 위해서는 마을회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상점/슈퍼에서는 구매·판매, 교제·휴식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계획의 대상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에 추가하여 마을안길과 상점(슈퍼)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농촌마을의 42개 공간에 대한 공간이용량을 산출하고 8단계의 이용등급(1~8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비농가마을(유형 I/II)은 4등급 이상의 공간이용율이 전체의 72.5%, 73.7%로 나타나 혼재 및 농가마을[유형 III(91.9%)/IV(98.1%)/V(94.8%)]과 비교하여 뚜렷하게 낮았다. 그리고 비농가에서 전업농가로, 청년층에서 노년층이 될수록 4등급 이상의 공간이용률은 75.8%→89.4%→92.9%로 높아지고 1, 2등급에 해당되는 공간의 개수도 4개→7개→9개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업농가 혹은 노년층일수록 농촌마을의 몇몇 공간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일곱째, 농촌마을에 대한 거주성 평가와 평가이유를 살펴보면, 농가(겸업 및 전업농가)는 마을에 대한 소속감과 이웃과의 관계가 긍정적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비농가의 경우 자연환경의 질과 중심지로의 접근성에 기초하여 마을의 거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농촌주민의식에 기초한 마을공간의 군집분포를 살펴보면, 농촌마을의 공간구성은 자택을 중심으로 마을회관과 노인정, 상점 등의 생활공간이 둘러싸고 그 외곽으로 농경지와 공동창고, 공동건조장 등의 생산공간이 위치한다. 이러한 생활공간은 다시 휴게 및 상업공간, 문화 및 교육공간, 주민모임공간, 교통공간으로 구분되어진다.

여덟째, 농촌주민의 개선필요도는 표준점수기법(標準點數技法)에 기초하여 정주행태의 중요도와 빈도, 이용공간의 만족도를 합성하여 도출하였다. 농촌주민은 일상생활에서 '개인영농활동(72.64)'과 '공공공간 이용활동(55.25)'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였다. 개인영농활동의 경우 자택에서의 농기계와 농산물 보관을 위한 공간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공공공간 이용에 대해서는 금융 및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군청소재지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